



# 독일 호스피스

2022. 06. 01 (22-03)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섬깁니다

너희는 쉬토하라 내 백성을 쉬토하라 (사 46:1)

6월을 맞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에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호스피스의 사역보고와 기도제목을 드리오니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사역 보고

### 1) Sonntags Café (존탁스카페) 사역 시작

독일 호스피스 선교사로 파송 받아 베를린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을 지나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선교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Sonntags Café" (일요카페)입니다. Sonntag(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특별한 카페입니다. 믿지 않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 낮은 울타리의 교회입니다.



파독 근로자 어르신들중에는 암과 싸우며 투병하시는 분에서부터,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혼자 살면서 대충 "혼밥"을 하며 외롭게 지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드리고, 식사 후에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드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Sonntags Café"는 주일 오후 1시부터 식사와 교제, 그리고 예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은혜로운 찬양과 간결한 성경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다과는 전부 무료로 제공되지만, 독일의 어느 한식당보다도 맛있는 식사를 드실 수 있다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현재 20명이지만, 매주 나오시는 분은 12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초신자와 2~3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부활주일과 어버이주일

지난 부활주일(4/17)에는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서 주중에도 계속 감사가 가득했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사역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베를린에서 낮은 울타리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찾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어버이주일로 지켰습니다. 파독근로자 어르신 중에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정으로 자녀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며 대한민국의 어버이로 나라를 키운 노고를 위로하며 가슴에 꽃도 달아드리고, 조금 더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꽃을 받고 너무 감격해 하시는 모습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 2. 감사한 일

독일 사역이 조금씩 자라가며 믿지 않는 교민들에게 섬김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던 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 오래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던 분들도 믿음이 많이 회복되어,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섬김에 보람이 많습니다.



존탁스카페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독일에 와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일마다 봉사도 하고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예배까지 드리니 너무 좋다고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젊은 부부 봉사자는 매주 설거지 봉사를 하고 다시 섬기는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봉사자들로 인해 **카페 분위기가 매우 훈훈**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3. 독일 호스피스를 후원해 주세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지만, 분단시절에 동독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베를린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한인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독일호스피스를 돕는 **새로운 후원자들이 연결되도록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할 때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과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1.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2. 늘어나는 환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니어 그룹홈을 허락하여 주소서
3. 주일 카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4.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오시기 편리하고, 예배와 교제에 좋은 <쉼터>공간을 주옵소서
5. 독일호스피스를 함께 섬길 신실한 사역자와 동역할 봉사자, 후원자들을 보내주소서

- 1 사랑의 마음으로 독일 호스피스를 정성껏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2 후원금은 독일호스피스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 3 모든 후원금은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의 "월간 호스피스"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희명 (이명애) 선교사

이 메 일 heem59@hanmail.net  
heem59@gmail.com  
카카오톡 heem59  
전 화 49+ (0)1525-936-6511

### 후원계좌

박희명  
(국민은행) 271402-04-064873  
**Hee Myung Park**  
(Commerzbank) DE09 1004 0048 0430 11800  
BIC(Swift) COBADEFF